

#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분야

작품 제목

정직한 씨앗을 키우자

## 작품 본문

나는 청렴과 정직에 대해서 거리가 멀었다. 이번 청렴 백일장 대회에 나오면서 '청렴'이라는 단어와 그동안 내가 청렴, 정직하지 못한 일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저학년 시험은 쉽고 어렵지 않아서 시험을 보면 거의 95점~100점이 나왔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원래 좋아하던 과학, 사회가 너무 어렵고 시험을 잘 못 보는 내가 싫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쯤 담임선생님께서 "내일 과학 시험이니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라고 하셨다.

나는 시험 연습하기가 귀찮았고 하기 싫었다. 시험 당일 시험 보는 시간이 다가왔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모르는 문제가 산더미였다.

나는 더 잘 맞고 싶어서 선생님께 "저 화장실이에요" 하고 화장실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하면 안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화장실에 갔다가 내 자리에 앉기 직전에 짝공의 시험지를 쓱 보았다.

그 짝공은 내가 모르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 내가 본 모르는 문제를 짝공의 답과 똑같이 적었다.

하지만 시험점수는 보통 점수로 잘 보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짐을 하였다.

다음 시험은 정직하게 못 해도 좋으니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고 다음 시험점수도 높게 나왔다.

난 일이 있고 예전에 보았던 영상이 떠올랐다. 거기에 나오는 '은지'라는 아이도 엄마가 시험을 잘 보면 새로운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하였는데 은지가 선생님 몰래 답을 고쳤다.

나중에는 은지도 나처럼 양심에 찔렸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였다. 물론 나는 시험지를 베꼈다고 말하진 못하였지만 은지는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게 용기있고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 속에 정직 씨앗은 아직 작은 새싹이지만 커가면서 정직 새싹이 커져 열매를 만들 때쯤 나는 청렴하고 정직한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내 마음 속에 자라나는 새싹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정직한 일과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시험을 베껴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